

홍성고등학교
www.hongseong.cnehs.kr

매봉소식

제 42 호

2022년 10월 21일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9
TEL : 041-632-2610

발행인 : 교장 이기세
편집 : 창의인성교육부
동서남북기자단

성실 교훈



▲ 종합우승을 한 8반의 단체사진

충청남도 홍성군의 홍성고등학교가 3년 만에 체육대회 '2022 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2022년 5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유행 전인 2019년 5월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체육대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던 단합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평소 학업을 위해 책상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체육과 선생님들의 지도를 기반으로 홍성고등학교 제77대 학생회 체육부가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였다.

체육대회의 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피구, 팔씨름,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그리고 계주였다. 경기는 홍성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교외 족구장, 농구장에서 운영되었다. 줄넘기와 계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토너먼트 대진은 1, 2, 3학년 각 반이 한 팀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대표가 제비를 뽑아 대진표를 구성하였다. 본 체육대회 행사에 앞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축구·농구·배구·배드민턴·피구 종목의 예선전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종목은 본 대회에서 진행되었다. 예선전에서 축구 종목은 4반, 6반, 7반, 8반이, 농구 종목은 1반, 2반, 5반, 6반이, 배구 종목은 2반, 4반, 5반, 6반이, 배드민턴 종목은 1반, 4반, 7반, 9반이 탈락하였으며, 피구 종목에서는 1반, 4반, 7반, 10반이 탈락하였다.

본 대회 첫날인 12일에는 예선전을 진행하였던 다섯 종목의 경기를 운영하였으며, 동시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의 경기를 하였다. 경기 진행 시작 전 8시 30분 경부터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은 이기세 교장 선생님의 격려 말씀과 체육대회를 기획한 학생회 체육부 부장 3학년 김OO 학생이 학생을 대표해 진행한 선서문 낭독으로 이루어졌다.

첫 날 경기에서는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서의 첫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경기에 임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신의 팀을 목이 아플 만큼 응원하였다. 점심 시간에는 이벤트성 경기로 여학생들과 여선생님들의 발야구 사제경기가 있었다. 사제경기는 학생팀의 승리로 끝났지만, 경기

참여한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가 진행되었다.

학생회 체육부에서는 경기 외에도 많은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보물찾기 행사와 사진전 행사를 진행하였다. 보물찾기행사는 교내에 숨겨둔 종이를 찾는 행사로 치킨이나 카페 이용권 등이 상품으로 많은 학생의 관심을 모았다. 사진전 행사는 체육대회 기간 중 찍은 사진을 공모하는 행사였다. 이러한 행사들 이외에도 하루 10반씩 제비를 뽑아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회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판매하였으며, 봉사부에서는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대회의 두 번째 날에는 결승전이 있는 날로 오전에는 구기 종목의 결승전과 단체줄넘기 경기가 있었고, 오후에는 줄다리기와 계주 경기가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한 번에 진행되었다. 축구 종목에서는 5반이, 농구 종목에서는 3반이, 배구 종목에서는 8반이, 배드민턴 종목에서는 8반이, 팔씨름 종목에서는 1반이, 피구 종목에서는 8반이, 단체줄넘기 종목에서는 10반이 우승을 하였다. 두 번째 날에도 역시 아이스크림 행사와 사제경기를 진행하였다. 사제경기는 남학생들과 남선생님들의 경기로 진행되었으며, 치열한 경기 모습을 보였다. 오후에 진행된 줄다리기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3반이 우승을 가져갔다. 체육대회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계주는 체육대회의 꽃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모두가 열정적으로 임하였다. 계주는 5팀씩 두 조로 예선을 진행하였고, 예선 경기부터 치열했다. 2조의 10반은 중간에 배턴을 놓치는 실수가 있어 4등까지 내려갔었지만 모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 예선전을 1등으로 들어와 결승전에 출전하였다. 모두가 주목하는 계주 결승전에서는 8반이 1등, 10반이 2등, 1반이 3등, 5반이 4등, 9반이 5등을 하였으며, 계주 경기가 끝난 후 집계된 최종 등수는 8반이 4개의 종목을 우승하여 1등, 10반이 2등, 3반이 3등, 5반이 4등, 1반이 6등, 9반이 7등, 2반이 8등, 7반이 9등, 4반이 10등을 하였다.

(뒷면에 계속)

(1면에 이어서)

종합 우승을 한 8반 중 배구 종목의 우승을 이끈 3학년 8반 이OO 학생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배구를 해서 너무 재미있었다. 처음으로 하는 체육대회라서 1.2.3학년 모두가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즐거웠으며, 우리 반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더욱 기뻐던 체육대회였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전제적인 운영을 맡은 학생회 체육부의 3학년 부장 김OO 학생은 “고등학교에서의 체육대회 경험이 없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선생님과 선배님, 학생들의 도움으로 잘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큰 부상 없이 모든 학생이 체육대회를 즐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체육부 활동이 희망 진로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의 큰 행사를 기획한 경험이 매우 값지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부 차장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회 체육부는 체육대회가 종료된 후에도 체육

대회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하여 체육대회 종합 1등~5등 팀마다 한 학생을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여 총 5명의 학생에게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체육대회 이전부터 진행해왔던 교내 스포츠 리그인 H리그를 계획대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교내 스포츠 리그인 H리그는 6월 예선전을 마치고, 7월에 결승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사제동행 배구대회 중 교사팀의 의기투합 장면

체육대회 보물찾기 EVENT

기간 5/12 - 5/13

참여방법

1. 출제지은 쪽지를 찾는다.
2. 적혀있는 상품을 확인한다. (방 있음)
3. 종이와 함께 신년 포장으로 체육부팀을 찾아간다.
4. 상품을 받고 친구에게 자랑한다! (상품은 추후 제공)

학교에 흩어져있는 보물을 찾아보세요!

학교에 숨겨진 보물찾기를 찾아 학생회 체육부에게 알려주세요! 푸짐한 선물로 돌아옵니다!

3회	3회	10회
치킨 (매뉴 미정)	커피 10,000원 상품권	커피 5,000원 상품권

제77대 학생회 체육부

▲ 학생회 체육부에서 진행한 행사 포스터

흥성고 정구부 단체전 금메달의 결실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9반 이은직

흥성고등학교 학생 정구(소프트테니스)부가 2022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전국 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 연맹에서 전북 순창군에서 주최한 '2022년도 전국 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 추계 연맹전'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단체전과 개인 복식, 단식 종목이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3학년 김대원, 강민찬, 최재성, 여정환 선수, 2학년 이영민, 김민우 선수, 1학년 구형진, 임지환 선수가 출전했다.

17개 고등학교가 참여한 단체전에서 흥성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식 종목에서는 3학년 최재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나아가 흥성고등학교 정구부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103회 전국 체육대회에도 참가했다. 3학년 최재성 학생은 개인전 단식 준우승(은메달), 김대원, 강민찬 학생은 복식 3위(동메달)를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우승(금메달)의 결실을 맺으며, 더욱 막강한 전력을 보여주었다.

정구는 소프트 테니스, 연식정구라고도 불리우며, 코트 중앙에 네트를 두고 공을

넘겨 득점하는 라켓 스포츠 경기이다. 테니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라켓의 양면을 사용하는 테니스와는 다르게 손목과 라켓의 한 면만을 사용하며 무른 고무공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무른 고무공을 사용함에도 선수들이 강한 스윙으로 공을 치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공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박진감 넘치고 빠른 속도감이 있는 정구 경기의 매력에 빠지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로 대한민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성행하는 스포츠로, 2004년에 유럽 지역에 도입되어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영국 등지에 정구 연맹이 설립되었다. 현재에는 국제 정구 연맹 (ISTF)이 총괄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경기로는 전국여자연식정구대회, 전국남녀중고등학교 연식정구대회, 전국도시대학 연식정구대회, 서울특별시시장기쟁탈 남녀별추계연맹전, 대통령기쟁탈 전국연식정구대회, 국무총리기쟁탈 전국연식정구대회, 전국대학추계연맹전, 개인연식정구대회 등이 있다.



▲ 103회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한 정구부 학생들

숨 막히는 혈투, 기숙사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6반 유승민



▲ 기숙사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 중 한 장면

2022년 9월 26일, 흥성고등학교의 새로운 리그로 기숙사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열리지 못할 것 같았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새롭게 계획된 이 대회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자신의 흥미와 특기를 발휘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 스포츠로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 스포츠퍼슨십(sportpersonship)의 실천으로 선후배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학기 중 진행되는 H리그의 진행 방식인, 선·후배 간의 연합팀이 구성되어 여러 학년이 함께 리그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이번 대회는 기숙사생 중 희망자와 교사가 합을 맞춰 팀으로 참가한 대회라는 점에서 색다른 관점 포인트를 제공하였다.

몇 년 만에 열린 리그였던만큼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체육관을 찾았다.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21점 단세트 경기가 펼쳐졌다.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활약으로 경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강팀들의 경기답게 오랜 시간 동안 누구하

나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경기를 관람했던 학생들은 “경기를 보면 볼수록 팀원들이 사제 간의 관계를 넘어 서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학생과 선생님의 모습 속에 그 동안 열심히 연습한 흔적들이 보였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며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러질 기숙사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에도 많은 기대가 된다.

2022학년도 H리그 1학기 시즌 종료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9반 이은지



▲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 모습

흥성고등학교의 스포츠 리그인 H리그의 2022학년도 1학기 시즌이 종료되었다.

지난 4월 6일 개막한 이번 H리그는 배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으로 구성되었으며 같은 학년 간의 리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1학년은 1·10반, 2·6반, 3·4반, 5·8반, 7·9반이 각각 팀이 되었다. 2학년은 1·8반, 2·3반, 4·5반, 6·10반, 7·9반이, 3학년은 1·3반, 2·7반, 4·6반, 5·8반, 9·10반이 한 팀으로서 경기에 참여했다.

시험 기간 임에도 관중석은 학생들로 가득 찼으며 선수들도 땀에 흠뻑 젖도록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1학기 H리그는 18일 마무리되었으며 각 종목 순위를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여 전체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였다.

축구, 농구, 피구, 배구에서는 1위 100점, 2위 80점, 3위 60점, 4위 50점, 5위 30점을 지급했다. 배드민턴에서는 1위팀에게 상품으로 라켓을 수여했으므로 각각 80점, 60점, 40점, 20점, 10점이 지급되었다.

1학년은 1·10반, 3·4반이 총점 300점으로 공동 우승했다. 2학년은 2·3반이 320점으로, 3학년은 5·8반이 32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팀 편성을 보고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했지만, 예상치 못한 접전이 벌어지거나 약팀이라 생각했던 팀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우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학생들에게 큰 재미를 주었다.

매 경기마다 꾸준한 활약이 있었던 2학년 농구 우승팀인 2·3반의 선수 최00 학생은 “팀을 믿었기에 우승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를 통해 형성된 팀원과의 유대감을 과시했다.

모두가 한 목표를 위해 뛰는 운동 경기는 협동심을 기르고, 학우들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밖에 스트레스 해소, 선의의 경쟁 유발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 H리그는 2학기에도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며, 전망이 밝은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더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2학년 10반이 쏘아 올린 작은 공

2학년 10반 윤성운

2학년 10반에서 9월 초부터 진행한 영어 듣기 모의평가와 자율학습이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점심 시간을 활용해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는 30분 동안의 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10반의 면학 분위기를 바꿨다. 2학기가 시작되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마음에 들뜨고 어수선했던 학기 초 분위기가 9월까지 이어져 자칫하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진행한 자율학습이 한층 의미있는 점심시간으로 면학 분위기를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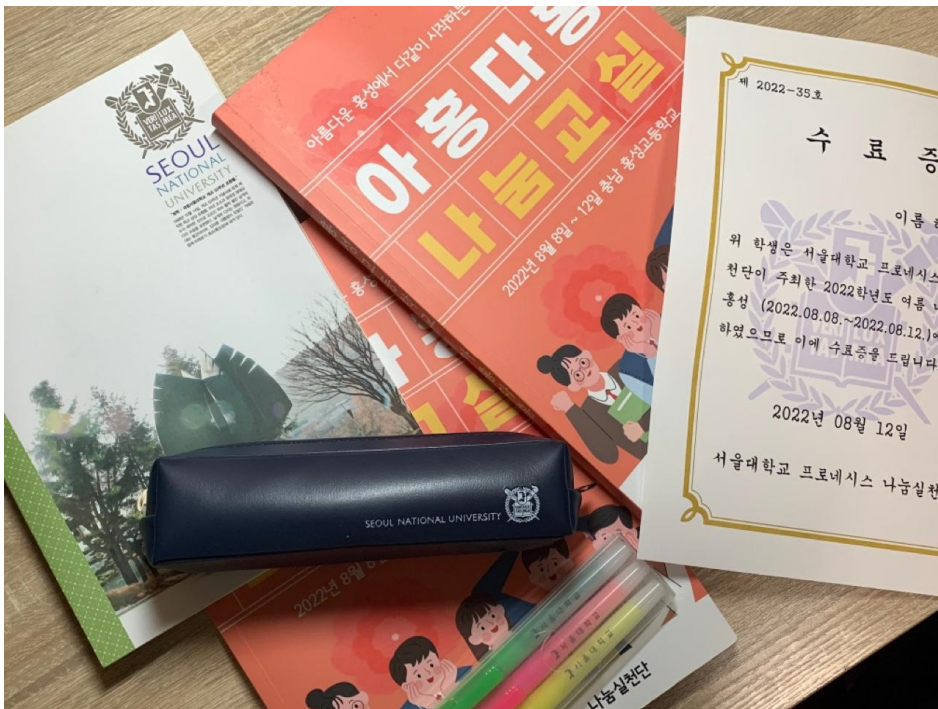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뀐 큰 이유는 2학년 10반 담임 선생님의 관심 덕분이었다.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에 빠져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시기에 평소에도 반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상담을 통한 진지한 조언, 공부 자극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 주셨고, 점심시간 자습 아이디어를 내주셨다.

나아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반에 들려 감독을 해주시는 등 초반의 학습 환경 관리에 애써주셨다. 점심시간 자습이 시작되고 처음 며칠 동안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면학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3주 정도 지난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10반의 모습에 다른 반들도 연쇄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 각 반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자율학습 등과 같이 학업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 현상은 한 반의 변화가 다른 반에도 변화를 가져다 준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홍다홍 교육 캠프, 서울대학교 나눔교실

2학년 3반 허보현



▲ 아홍다홍 나눔교실을 수료한 학생의 기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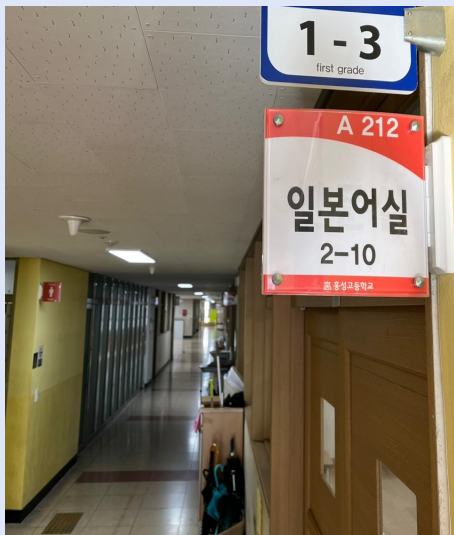
지난 여름방학, 8월 8일부터 12일, 1주간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캠프가 진행됐다. 캠프에는 의예과, 약학과부터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경영학과, 자유전공학부까지 다양한 학과에서 온 학생들이 나누미가 되어 함께 캠프를 진행하였다.

캠프의 활동은 과목별 공부 조언, 학교 생활 조언, 교내 활동 추천, 학과 생활, 다양한 레크레이션 등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온 활동을 통해 흥성고등학교의 참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위해 한 달간 만나며 수정을 거듭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활동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에서도 학생들과 많은 교감을 하여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장기자랑 무대와 골든벨, 운동회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에 참여한 흥성고등학교 김OO 학생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주변에 서울대학교 학생이 없을 뿐더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는데 체계적인 활동 구성으로 매우 유익했고 재미있었다.”라고 답했다. 활동에 만족했던 것은

흥성고등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었다. 교육 캠프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학생들 역시 이번 활동이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OO 나누미는 “한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일주일동안 학생들처럼 웃고 떠들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학생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학생들을 만나니 ‘아, 내가 교사를 꿈꿨지?’라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학생들처럼 소통하는 순간 순간이 행복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지었다. “흥성고 친구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매 순간 순간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다하라. 후회없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건 무엇이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자. 벌써 여러분들이 보고싶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나눔교실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흥성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잊지 못할 여름이 되었을 것이다.



▲ 2학년 10반과 2학년 교실 전경

2023 흥성고등학교 입시설명회

2023학년도 흥성고등학교 입시설명회
10월 22일(토) 14:00. 시청각실 및 교실

여름방학 중에도 학습은 계속,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

동서남북 기자단 1학년 2반 신소이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흥성고등학교는 여름방학 방과후를 실시했다.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학생들에게 구글폼을 통해 개설된 13개의 수업의 수강 신청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의 기초 과목과 미술, 체육 같은 예체능 과목을 개설하였다.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예체능 과목까지 다양한 과목의 수업이 개설되었다. 학생들은 방학에도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생님과 함께 학습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정말 높았다.

1학년 5반에서 진행된 김OO 선생님의 기출 비문학 수업은 첫째 주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학년 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들어와 모의고사를 보며 접하게 된 비문학 지문이 매우 낯설고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방과후 수업을 들으며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고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비문학 지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여름방학이 지나고 8월 31일에 본 전국연합학력평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남다른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2주에 걸쳐 진행된 김OO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I 교과 학습에 필요한 수학 개념을 배울 수 있었다.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 배울 지수와 로그를 미리 접하며 수학 I을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겁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주시며 수업을 진행해서 수업이 만족스러웠다고 하였다.

김OO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기본 수능 영어 수업에서는 유형별로 나뉜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학생들이 먼저 풀고 선생님께서 지문 풀이 해설을 해주는 거꾸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능 문장은 함축적이고 주어가 길어 해석이 어렵고 문법이 많아서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은 영어 여름방학 방과후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조OO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미술 방과후 수업에서는 텍스처 페인팅 활동을 하며 4~5개의 작품을 만들며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5일 동안 다양한 텍스처 페인팅 작품을 만들며 뿌듯했다는 학생들도 많았다.

남OO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화학으로 물을 가

르쳐 주셨다. 학생들 다수가 물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처음에는 물이 무엇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수업을 들으며 점차 이해되었고 수업이 유익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2주 차 오전에 운영된 윤OO 선생님의 물리 수업에서는 핵분열, 핵융합, 특수 상대성 이론 등을 배우며 학생들이 선생님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물리를 접할 수 있었다. 물리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많지 않던 학생도 즐겁게 수업을 들으며 배울 수 있다고 전해왔다.

박OO 선생님과 손OO 선생님께서는 체육관에서 학생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셨다. 준비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을 치며 학생들은 방학에도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학습을 이어 나가며 학습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2주 동안 다양한 과목의 방과후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주신 흥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여름방학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흥성지역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의 거점으로

동서남북기자단 1학년 2반 김시훈

2022년 3월 28일, 흥성고등학교는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 중 하나로 다양한 교과 수업을 시작하였다.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특정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모여 수업을 듣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충청남도 모든 고등학생들이면 신청 가능 하며, 필요한 교과를 학습할 수 있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와 연합으로 과목을 만들고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을 말한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교육청이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개설과목과 거점학교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에서 거점 학교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한 학생들이 지역 내의 인근 학교로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1학기 때 수업으로는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고급생명화학, 심리학, 프로그래밍, 간호의 기초, 교육학, 컴퓨터 그래픽이 있었다. 심리학과 교육학은 수업이 2개씩 열렸는데 심리학은 흥성여고와 흥성고에서, 교육학은 모두 흥성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수업은 주로 흥주고, 흥성여고, 흥성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들은 각각의 학교에 관련 분야의 선생님들이 맡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은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이루어지며, 2학기에는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심리학, 교육학, 프로그래밍, 간호의 기초,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일반 등이 있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신청 시 주의할 점으로는 이미 수강한 교과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에 포함된다.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해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해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만들어 학교를 넘어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은 2018년에서부터 시작한 활동으로 지금은 참여하는 지역만 14개에 달하고 수업 과목은 133개, 참여하는 학생 수는 1,670명이나 되고 있다.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외에도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이 있다. 단위학교가 주관하여 인근 학교와 연합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이다. 거점 학교가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말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온라인 교실환경을 제공하는 정규교육과정이며, 오프라인 형태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교과를 파악해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다.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은 교육청, 대학, 지자체가 업무협약한 내용을 통해 공동 교육과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특별 개설한 정규교육과정 또는 진로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유연화하고, 과목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흥성고의 경우에도 다양한 교과외 거점학교로 활동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풍부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교육학(거점학교 흥성고) 수업 실연을 하는 학생의 모습



▲ 컴퓨터그래픽(거점학교 흥성고) 2학년 서OO 학생의 디자인

[기획] 청소년 문해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서남북 기자단

디지털 매체가 확산되고,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등의 교육환경 전환이 몇 년 전과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청소년 문해력 저하 문제가 교육 문제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교내 언론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동서남북 기자단에서는 방송부와 합동으로 우리 학교의 청소년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1학기 동안 진행하면서 청소년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정보의 수용을 들었다. 흥성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충남도교육청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는 교육과정과 중등교육팀 김OO 장학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청소년 문해력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해력(혹은 문식성, literacy)’의 개념이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쓰임새도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사회·문화가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개념과 쓰임새가 생겨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해력’을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을 이해·해석·창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위 프로젝트에서 문제 삼는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뜻을 파악하는 능력’ 정도로 보면 될 듯합니다.

기초 어휘가 부족하여 글을 읽고도 뜻을 파악하지 못 하는 ‘실질문맹’ 수준의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야단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문해력의 위기’입니다.

청소년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다양하게 꼽을 수 있겠지만,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중심 미디어 의존’이라고 종합하겠습니다. 책 대신 모바일, 문자 대신 동영상에 익숙한 거죠.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결과를 보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97.2%, 텔레비전 81.8%, 피시인터넷 68.7%, 라디오 16.5%, 잡지 8.7%, 종이신문 7.8%입니다. 10대 청소년이 관심이나 흥미 있는 주제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독서습관을 기를 기회와 독서량이 부족합니다.

2. 고교학점제로 인해 국어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유동적일 수 있는데 청소년의 전체적인 문해력 향상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2022학년도부터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기입니다. 2023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교육과정 편제가 지금과 다릅니다.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 ‘단위(17시간이 1단위)’가 ‘학점(16+1회가 1학점)’으로 전환됩니다. 총 이수 학점이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어 16회 수업을 1학점으로 하여 총 192학점(2,560시간)을 이수하게 교육과정을 편제합니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제가 국어와 영어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작용을 막자면 우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고르게 감축해야하겠지요. 3년간

192학점을 균형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업량을 고르게 편성하는 한편, 시간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학교마다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질문에 쓴 ‘국어 관련 과목’이란 보통교과 기초교과 공통과목인 ‘국어’와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를 말하는 거죠? 학교에 따라서 국어교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이수 학점을 감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대로라면 과목 선택권이 확장되면 선택의 유동성이 커지는 만큼 학습자 주도성도 커질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길러야 할 문해력은 문자해독 수준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을 이해·해석·창작할 수 있는 힘이지요. 주로 1학년 때 이수하는 공통과목들 중 ‘국어’ 과목의 하위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입니다. 이들 영역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각 영역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기르는 수업활동이 곧 문해력 향상 과정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문해력 저하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수업과 평가가 학습자 주도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앞서야겠지요. 모든 교과·비교과활동에서 독서와 글쓰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면에 이어서)



▲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를 읽고 포스트잇을 활용해 비경쟁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흥성고만의 독서토론리더 프로그램)

(옆면에 이어서)

3.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문해력 저하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련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교육 정책을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의 소득 차이, 부모 등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도농 간 지역 차, 다문화 가정 배경 등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를 ‘교육격차’라고 합니다. 교육격차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의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초)학력 차이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육격차(학력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진단] 국어와 수학 과목 중심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합니다.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이후의 학력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춤 지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개별화 맞춤교육이 필요합니다. 교과보충, 한글책임교육, 학습코칭, 난독증 학생 지원, 개인별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전담인력 배치, 다양한 진로 탐색·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합니다. 학습의 기초가 되는 심리·정서, 사회성에 대한 진단과 회복 지원, 신체 건강에 대한 진단과 증진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 교복, 교과서 지원 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급당 인원수 감축이야말로 교육복지의 핵심입니다.

기초학력 회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 행하게 될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항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개인별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력향상 연구센터 운영
- 기초학력 전담인력 배치, 14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지원단 확대

4. 청소년 문해력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교육에서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해력 해법은 독서에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어휘 기초를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연계 독서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휘력은 암기로 다져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휘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적 의미나 함축적 의미까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 것이 되어, 말하고 쓰는 능력으로까지 확장되지요.

충남교육청에서는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학교도서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비교과 연계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학, 동아리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해력에 기초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내실있게 정착되고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도록 연수·연구·장학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지식과 정보를 얻는 매체로 줄글이나 종이책

활용 비중을 늘리길 권장합니다. 한마디로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독서량을 늘리라는 것이지요. 어느 분야의 책이든 한 권을 온전히 다 읽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상투적인 이야기겠지만 학교 수업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업 언어는 일상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일상을 사는 데 필요한 단어나 문장은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쉬운 단어, 단순한 문장으로도 다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의 언어는 교과서 속 글이든 선생님의 말씀이든 전문적이고 풍부합니다. 문해력이 높아야 수업에 집중력이 생기지만 반대로 모든 수업 활동을 통해 문해력이 향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6. 문해력 관련 장학사로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해력 향상과 관련하여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교과서적인 말입니다만, 어느 과목이든 수업 중 궁금한 내용이나 관심 가는 주제가 생기면 덮어두지 말고 꼭 관련 책을 찾아 읽기를 권장합니다. 늘 기록하기 바랍니다. 간단한 메모여도 좋고, 일기여도 좋습니다.

김OO 장학사님은 인터뷰를 통해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중심의 미디어 의존으로 청소년 문해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 문해력을 위해 책 읽기를 권장하며, 단순히 읽기를 넘어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글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에서 나아가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학습 활동의 기본이 읽기이며,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 문해력을 향상하고자 한다면 책 읽기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미디어의 길

3학년 10반 송나리

이제는 친(親)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미디어 시대

3학년 10반 서정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열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바로 '주입식 교육'이라는 문제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는 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중 하나가 교육적 가치를 담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전으로 현재 우리는 초연결, 초지능의 디지털 사회(digitalized society)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사회를 하나의 미디어로 변화시켰으며 세계 각국은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 MCN(Multi-Channel Network)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MCN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고안해볼 수 있다.

바로,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현재 10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삶의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관련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 중 70%가 매일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들이 크리에이터들의 주된 시청자라는 점은 교육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교육 콘텐츠에 대한 홍보 전략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을 보다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교육 MCN으로는 유니브(YOUNIV)를 들 수 있다. 유니브는 Z세대를 위한 교육 미디어로서 언고티비, 유니브클래스, 입시덕후, 고등개미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등개미 채널의 경우 출연진들이 각 100만원의 시드머니를 갖고 주식 실전에 도전하는 체험형 형태로 제작되어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식 관련 정보 또한 전달하는 채널이다. 유니브에 속한 여러 채널들은 현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탄탄한 팬덤층을 보유하고 있다. MCN, 그리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교육 미디어를 개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는 현재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MCN 산업은 크리에이터 팬덤과 유통되는 콘텐츠의 수, 이용자들의 지지, 다양한 수익모델 등에 힘입어 빠르게 확장했다. 이를 교육에 활용한다면 디지털 사회(digitalized society)만의 새로운 교육, 학생들의 몰입감과 능동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원합니다 !!!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주변 곳곳에서 들린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생명권에 대한 윤리 의식 증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디어 콘텐츠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방송 영상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는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을까?

미디어에서도 이제는 ESG가 큰 관심 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 플랫폼이 이상적으로 결합한 형태인 넷플릭스는 ESG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지 불과 몇 년도 안 되어 글로벌한 우수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넷플릭스는 ESG 리포트를 2019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의 목표는 '다양한 장르와 언어를 통해 최고의 스토리로 세상을 즐겁게 한다.'이다.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면서도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로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것의 전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다.'



▲ 우리의 지구(출처:넷플릭스)

이를 위해 'Netzero'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프로젝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마도 넷플릭스는 거의 모든 레저 활동에서 시간당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 영상을 한 시간 시청하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LED 전등 한 시간, 팝콘 4봉지를 튀기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방송은 어떨까? 친 환경을 넘어 필 환경 시대가 된 지금, 방송가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변화가 시작되었다. 즉, ESG의 열풍에 맞춰 친환경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KBS에서는 '탄소 제로 프로젝트'라는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에 한 발 더 다가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공효진, 이천희, 전해진이 출연하는 환경 보호 캠프 프로그램 '오늘부터 무해하게'를 제작했다. '1박 2일'과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이다. 충청남도에도 있는 섬 죽도에 머물면서,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상품들을 홍보 및 활용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가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 그림은 KBS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보여준다. 총 17개의 목표 중 6번은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에 대한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목표이다. 수질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산, 산림, 습지, 강 및 호수 등에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13번은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감소 등에 대해 교육, 인식 고취, 인적 및 제도 역량개선을 당부하고 있다. KBS는 사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를 잘 수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SBS 역시 '공생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4번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한반도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며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퇴치한다는 주제이다.

위 두 가지 프로그램의 의의는 지상파 방송사라는 매체의 힘을 활용하여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ESG 요소를 탐색을 시도 했다는 데 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영역과 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깊은 공감을 하며, 함께 몇 가지 의견을 내보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모두 살펴본 것은 아니라 선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제작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으로 했는지 궁금하다. 촬영 과정에서 출장 및 숙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전기를 덜 쓰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또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궁금하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오지 촬영에서는 그린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환경에만 국한하지 말고, 위 그림의 17개 목표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에 표기하는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위의 목표를 활용한다면 ESG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향력이 큰 방송사의 경우 비슷한 투자 규모 대비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모든 방송 프로그램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사회적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기대해 본다.

제78대 학생회장을 인터뷰하다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8반 지혜빈



▲ 흥성고등학교 제78대 학생회 단체사진

7월 14일, 흥성고등학교에서는 제 78대 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제 78대 학생회장으로 조강희(2학년 8반)가 선출되었으며, 학생부회장은 이시우(2학년 6반), 안혜진(1학년 1반)이 선출되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뽑힌 학생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약 진행 현황과 각오 및 소감을 들어보았다.

Q. 학생회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생활 중 공부와 수행평가로 할 일이 많아 인해 처음엔 출마하지 않으려 했지만, 중학교 때 학생회장을 한 재미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생회장이 되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공약을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보통 공약을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 학생들의 눈길을 끌고 즐겁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공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Q. 학생회장으로서 만들고 싶은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의 성격이 어중간한 건 좋아하지 않기에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성격인데, 제 성격처럼 공부할 땐 열심히 하고, 놀 때는 즐겁게 노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Q. 학생회 임원을 모집할 때 만든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장의 경우에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뽑기 위해서 점수제를 도입하여 3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은 친구를 뽑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학년 차장을 선발할 때는 각 부서 부장들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부장들이 각자 면접을 진행하여 차장을 뽑도록 진행하였습니다.

Q. 공약 시행 및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바른생활부와 봉사부가 만든 스티디룸, 기숙사 점호 1회 실시, 급식 새치기 방지 유도 줄 설치하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exam 포유, 와이파이 도시락, 급식실 앞치마 설치하는 현재 진행 공약 실행 준비 중입니다.

1회고사와 2회고사 사이에 3학년 졸업선물, 홍주교와 친선 경기, 점심 음악방송, 중학교 교복데이, 자판기 설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Q. 학생회장 된 소감 및 각오를 말해주세요.

학생회장이 되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내세운 공약들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저도 일반학생과 다를 없으므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다른 학생들과 잘 지내며 학우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막함 극복 위해 야외 테라스 설치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4반 오찬주

흥성고등학교 2학년 학년부장 김OO 선생님께서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학생들을 위하여 교정 야외에 간이 테라스를 설치하셨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자유가 많이 사라진 요즘. 실내에만 있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학생들의 활동이 줄어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운동부족으로 인한 건강 부진과 체중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흥성고등학교 2학년 학년부장 김OO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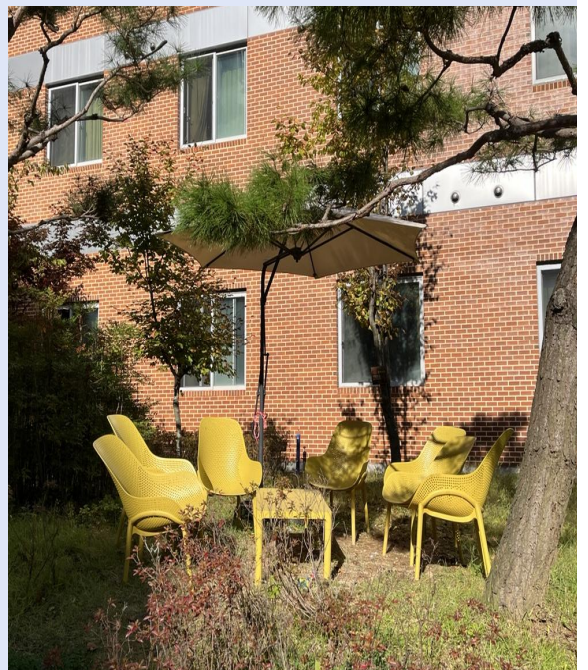
맨 먼저, 학생들의 원활한 당분 및 수분 보충을 위해 교내 자판기 설치를 추진하셨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기계 관리 및 수익금 사용 문제로 인해 자판기 설치는 무산되었다.

다음으로는, 학교의 공터로 남겨진 옥상을 이용한 학생들의 쉼터를 만들고자 하셨다. 햇빛이 잘 들어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옥상 위에 낮고 길다란 다인용의 테이블을 구매하여 놓으셨다.

그리고 적당한 높이의 밝은 색상의 의자를 더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강한 햇빛으로 인한 열사병을 대비하기 위해 파라솔까지 설치하여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옥상이라는 공간적 한계와 위험성 및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옥상 개방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김OO 선생님께서 많은 고민 끝에 옥상 위에 설치하였던 의자와 책상을 교정 바깥의 교목 부근으로 옮기셨다. 그 이후 테이블 및 의자의 개수를 늘리면서 비로소 흥성고등학교의 야외 테라스가 완성되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야외 테라스에서 학생들은 점심 시간 및 여가 시간마다 일광욕을 통한 비타민D 합성과 피로 회복을 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수업 시간 중 야외 수업에도 많이 이용되어 효율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테라스로 활용되고 있다.



▲ 소나무 그늘 아래 설치된 테라스, 학생 휴식에 활발히 사용된다.

꿈끼탐색주간, 선배와 후배가 만나는 시간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3반 윤혜린



▲ 2022년 졸업생이 후배들에게 수시 준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대학생 선배 멘토 컨설팅)

2022년 7월 11일~7월 12일 동안 1학기 꿈끼탐색주간이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본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학 연계 학과 멘토링 캠프(전공 체험 및 전공교수 특강), 학급별 진로 특색 활동 발표, 교육과정 박람회, 입시 설명회 특강 등 아홉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꿈끼탐색주간은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도 향상,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정보 습득을 통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진로 설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활동 중, 여러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있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라고 손꼽힌 두가지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7월 11일(월) 1, 2교시 동안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선배와의 만남(대학생 선배 멘토 컨설팅)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활동은 본교 졸업생 대학생 선배와의 멘토링을 통해 진학 준비 정보 및 효율적 학습법 경험 등을 공유하여, 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멘토링은 준비된 강의가 끝난 후 질문하는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공부법과 정시, 수시와 관련된 질문 등 중 평소 궁금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려대에 재학 중인 선배는 수시와 정시, 재수까지 모두 경험한 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문에 꼼꼼히 답해주실 수 있었다. 활동이 끝난 후 2학년의 윤OO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멘토링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공부법을 통해 공부를 해서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던 결국은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와닿는 말이였다. 결국은 “스스로가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Q. 멘토링 활동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번 멘토링 활동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먼저 걸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우리 주변 그 어떤 분들보다도 현재 저희와 가장 비슷한 일을 일찍이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때도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되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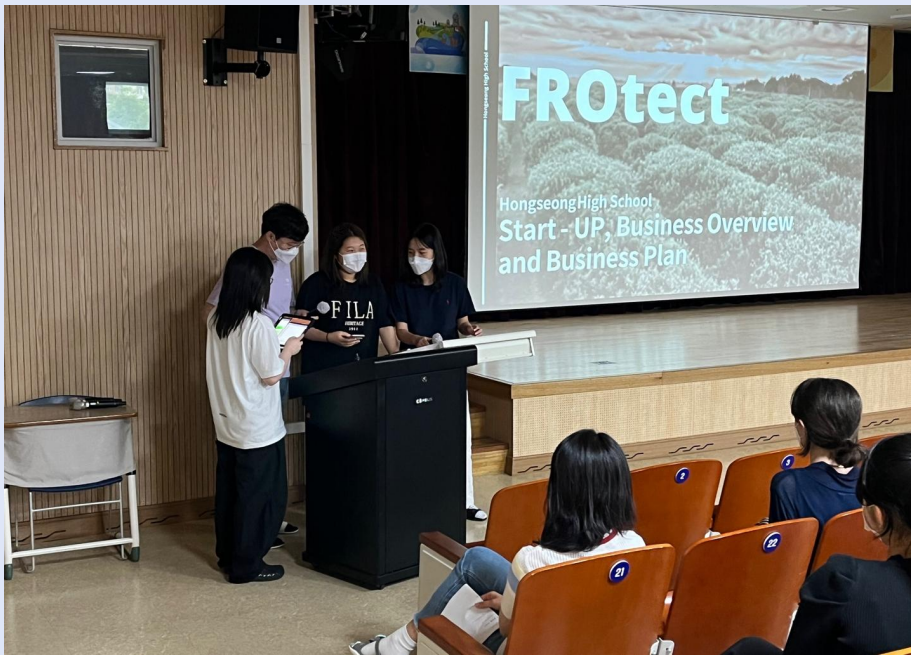
7월 11일 (월) 1학년을 대상으로 1, 2교시 동안, 2학년을 대상으로 5, 6교시 동안 교육 과정 박람회가 열렸다. 2학년과 3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 결정과 관련해 학생 자신의 진로 진학에 맞는 진로 교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열린 일종의 교과목 설명회였다. 그동안 선택과목 결정은 많은 학생들에게 고민거리였다. 한 학기 동안 들어야 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다. 게다가 대부분

의 경우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과목이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는지와 같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기본적인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과목명만 보고 해당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과목 신청이 반복되다 보니 현 2학년 중에서는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선택한 과목을 바꾸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진로가 바뀌어 과목을 바꿔야만 하는 학생들과 더불어 과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열린 교육 과정 박람회는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과정 박람회는 교실마다 영어과, 사회과, 국어과 등 교과를 지정한 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해당 과목 담당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과목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 해결 뿐 아니라 해당 과목에 대한 작년도 수행평가 자료를 보거나 수업이 주로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2학년의 김OO 학생은 “선택과목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안족스러운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교육 과정 박람회를 통해 평소에는 쉽게 얻기 힘들었던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과목 하나하나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좋았다.”고 밝혔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적정기술 스타트업 프로젝트

등서남북기자단 2학년 5반 김수현



▲ FR0tect 팀의 발표 준비 모습

흥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교과융합 주제탐구 프로젝트 주간인 7월 13일, 학년 특색 프로그램으로 적정기술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학업수준에 따른 탄력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진행한 교과융합 프로젝트는 학생 각각의 진로에 따른 자율적 보충, 심층 학습과 융합적 탐구를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직접 적정기술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었다.

적정기술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2학년 1학기 초부터 시작해 1학기 끝 무렵에 최종 발표를 진행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다. 적정기술을 활용해 소외 계층과 저개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디자인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유용한 과학 기술을 응용하고 창의적으로 공학을 설계하는 능력까지 활용하도록 했다.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다각면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모했다. 또한 단순한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생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사업적 가치와 확장, 예측되는 사회적 영향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했으며, 팀원 간의 협업과 발표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최첨단 기술이 아닌 개발도상국 등 해당 지역 사회의 인프라 수준을 고려한 적정기술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도모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이행하며 깊이 있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한 배움', '현실에 기반한 프로젝트 운영', '공동체 역량 및 협업 역량 개발', '확장가능성 향상'을 체현하고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본교 2학년을 대상으로 3~4명의 학생이 팀을 이루고,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연구할 주제를 선정해 참가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어려운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 학생들은 총 11팀이 참가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문, 이과의 경계를 허물고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 특히 활동에 참여한 허OO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관심분야가 공학이라 참여했는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알게된 기술도 있었고,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할지, 어떻게 구현할지를 생각해보면서, 알게된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여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던 기회였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사업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다. 또한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이 처음에 어려울 것 같았으나 오히려 기술을 개발, 설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팀원들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끊임 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라는 기간이 전체적인 면에서 더욱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장기 프로젝트를 마감했을 때는 엄청난 희열과 함께 팀원 간 우애가 끈끈해진 것을 느꼈으며 소감을 마무리했다.

적정기술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최종 발표를 마친 후 학생들의 투표를 반영해 선생님들의 심사로 우수작 3팀을 선정했다. 우수작 3팀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한 자가 발전기, 자동을 이용한 천연 식중독 방부제, 개발도상국을 위한 물정화 꾸러미를 개발한 팀이다.

직접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

등서남북기자단 2학년 학생 기자

지난 5월 20일 흥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재확인하여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임을 결성하여 진로에 맞춰 직업을 탐구하기도 하고 실제 직장을 방문하여 직장 환경, 구조, 분위기를 조사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사전에 교육받은 안전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을 전개했다.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은 3월 28일부터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진로 연관성을 바탕으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을 계획해왔다. 4월 11일, 모둠별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 장소(기관)를 섭외하여 협조를 요청했으며 방문일정을 확정지었다. 5월 16일 흥성고 선생님들께서 활동 계획을 최종 검토해주셨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방문하는 장소에 따라 직업 종사자 인터뷰, 현장 답사, 문헌 연구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 및 직장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이 방문한 장소는 대표적으로 충남 경찰청, 학교, 보건 환경 연구원, 충남 도서관 등이 있었다.

흥성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원활한 진로체험을 위해 각 학생 당 10,000원씩 활동비를 지원했다. 체험학습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고, 지도 선생님(담임선생님)께 수시로 활동 사진을 전송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진로 체험활동을 실시한 후에 학생들은 체험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은 자신의 진로에 따른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주제적인 탐구활동이었으므로 학생들은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주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에 작성할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홍성신문사 앞에서(인론방송 진로 희망 학생들)

2학년 역사문화체험학습 군산으로

2학년 8반 서윤서



▲ 5월 30일, 2학년은 군산에서 역사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2학년 수학여행 취소

등서남북 기자단 2학년 8반 최윤희

흥성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여러 학교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올해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 상황이 완화됨이 보여 2년만에 학창시절에 추억을 만들어 줄 수학여행을 가기로 계획하였다. 실제로 설문조사와 2학년 수학여행 계획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등이 상당 부분 추진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가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흥성고등학교 2학년부는 수학여행 추진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52명의 답변 중 코로나 재확산을 고려하였을 때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12.2%(28명)였으며,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 학부모님들이 오시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39.7%(59명)였다. 수학여행 중 학생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격리 숙소 경우 일반 숙소에 비해 비싸며 확진 인원을 예측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수학여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다시 재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에 낙담하였다.

이에 흥성고등학교 2학년부는 수학여행 기대감을 충족하고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현장체험학습을 설문조사하여 서울 롯데월드 현장체험학습을 추천하고 있다. 롯데월드 뿐만 아니라 전망대와 아쿠아리움까지 가는 계획을 세워 수학여행 취소로 인한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노력하였다. 학생들은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아쉽지만 서울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아쿠아리움과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대한다고 하였다.

우리 학교, 교실에는 생활 방역자가 살아요

2학년 9반 차은아

지난 2022년 3월, 전국적으로 코로나 재유행이 급격히 시작되면서 개학 초반 흥성고등학교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결석하는 전교생의 수가 적지 않았다. 3학년 9반의 경우 학기 초 특정 시기에 절반의 가까운 학생들이 빠지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2년부터 흥성고등학교에는 코로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반의 "생활 방역자"라는 역할이 생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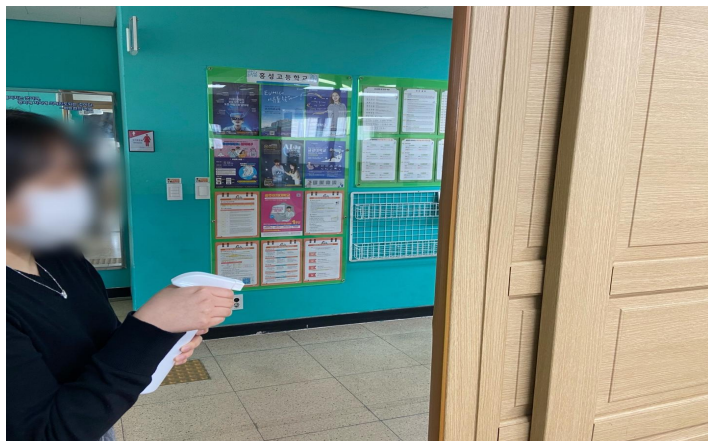
생활 방역자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학생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쓴다. 생활 방역자는 교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자가 진단 안내하기, 자가 키트 배부하기, 교실 환기하기, 하루에 1회 이상 반 친구들의 손길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마스크 미착용 학생에게 착용 안내하기 등의 활동을

실행한다. 그러나 3학년 9반 학생들을 토대로 간단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 방역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 방역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3학년 9반의 생활 방역자인 차OO 학생을 대상으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차OO 학생은 "생활 방역자로 활동을 하면서 교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학생들이 존재해 그것을 제지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교실 내 마스크 착용과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실시 안내였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는 3월 초반에 비해 코로나가 많

이 잠잠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비교적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교실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학교 교실에 가깝게 존재하는 생활 방역자가 한 몫을 한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방역을 위해 노력해주는 각 반의 생활 방역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고마움을 느끼며 교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한다면 코로나로부터 더욱 안전한 흥성고에서의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생활방역자, 차OO 학생의 소독 모습



▲ 방역을 위한 학급 물품

이석보 화백, 모교 후배들에게 ‘용봉의 꿈’ 헌정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8반 지혜빈



▲ 1층 중앙 현관에 전시된 이석보 화백의 ‘용봉의 꿈’

2021년 11월 26일 흥성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이석보 화백의 작품 헌정식이 있었다. 이석보 화백은 흥성고 33회 졸업생이다.

자신의 모교인 흥성고 후배들의 꿈을 응원하고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로 ‘용봉의 꿈’이란 작품을 제작하였다. ‘용봉의 꿈’은 용봉산으로 가는 길을 담은 작품이다. 걸 보기엔 아름다운 길이지만, 이석보 화백은 작품 속 후배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용봉산은 하나의 꿈이자 목표이며 용봉산으로 가는 길은 후배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가는 길이 좁고 구불구불하지만 주변에 선배들의 응원을 의미하는 들꽃과 푸른 기상을 의미하는 소나무들이 있으므로 가는 길이 거칠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석보 화백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화백이 되고 싶은 자신의 의지와 달리 금전벌이가 되지 않는 꿈을 부모님께서 반대하였다. 자신의 꿈을 일부 포기하여 미술 선생님이 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경희대 미술 교육과를 졸업하였다. 미술 선생님이

되고난 후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 세계관을 펼쳐 나갔으며 국가 미술 전람회에 출품하여 여러번 특선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알리게 되었다.

헌정식이 끝난 후에 작품에 관해 이석보 화백께서는 꿈을 향해 열심히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꿈을 위해 빠르게 달려가다 지쳐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재능과 역량이 부족해도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천천히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훨씬 더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다보면 삶의 만족감을 얻고 성공된 삶을 의미하는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모두가 그런 위치에 올라서있는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흥성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하셨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인문주간 작은 음악회

동서남북 기자단 1학년 2반 김산들

지난 7월 7일(목)~8일(금) 인문주간에는 인문학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어명은 해녀.’의 저자 허유미 시인 초청 강연, 오페라 콘서트 인문학, 인문학 글쓰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흥성고 1층 중앙 로비에서 자율 동아리인 브레멘 음악대와 밴드부 동아리의 공연이 이루어 졌다. 평소 층 마다 학년이 구분되어 있어 선배와 후배가 조우할 기회가 적지만, 이번 공연에선 학년 구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보는 계기 되었다. 공연이 시작 되면서 무대를 중심으로 학

생들이 모여 들었고, 자리가 부족하자 2층 난간과 계단에 모여 보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부원들은 위대한 쇼맨의 삽입곡인 ‘This is me’와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꿈빛 파티시엘 오프닝’ 등을 연주하였다.

학생들은 ‘꿈빛 파티시엘 오프닝’이 연주될 때에는 춤을 추거나, 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코코 삽입곡 ‘Remember Me’가 연주될 때에는 ‘눈물난다.’,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주었다.

공연이 끝난 후 부원은 “연습이 힘들었지만 부원들과 함께 연습을 꾸준히 해내어 공연한 점이 뿌듯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공연을 해내는 모습이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작은 음악회 공연 모습



▲ 학생들의 관람 모습

공감과 연민의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다, 비폭력 대화 캠프

동서남북 기자단 1학년 2반 김산들

흥성고등학교는 지난 5월 24일~25일 이틀간 흥성고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과 연민의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비폭력 대화 캠프'는 흥성고 학생들의 진정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적 경청 능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폭력 대화 교육은 대회의실에서 한국 비폭력 대화 교육원의 김순임 강사와 장현숙 강사가 학생들과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김미경 저자의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를 캠프 활동 전에 먼저 읽은 후 캠프에 참여하였다. 교육 내용은 '비폭력 대화란 무엇인가', '비폭력 대화 말하기의 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강의의 핵심은 비폭력 대화의 네 가지 모델을 알고 생활화 하는 것이다. '첫째, 관찰을 말하자. 자신이 들

은 것만 말하고, 본 것만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느낌을 말하자. 생각이 아닌 느낌을 표현한다. 셋째, 욕구를 말하자. 느낌의 원인인 욕구를 말한다. 넷째, 부탁으로 말하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부탁을 한다.'는 내용을 예시를 통해 말씀하였다.

학생들은 강사가 배부한 인쇄물의 느낌말 목록, 욕구 목록 등을 활용해 제시된 예시 상황에 이입해 비폭력 대화를 연습해 보았다.

비폭력 대화는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러운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닌 연민이 우려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이다.

비폭력 대화의 상징 동물로 기린이 사용되는데 기린

은 포유동물 중 심장이 가장 큰 동물로 공감 능력과 사랑의 상징이다. 또한 키가 약 6m인 기린은 시야가 넓어 잘 살피고 온순하나, 사자가 나타나면 맞서 싸울 정도로 가족 사랑이 대단한 동물이다.

비폭력 대화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 가족 간, 나아가 공동체 간 등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진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반응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으로 본다. 또한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으며 우리의 본성이 내재된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도를 사랑하자! 평화와 통일을 외치다!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5반 김수현

흥성고등학교 학생회가 독도교육주간을 맞이하여 4월 14일 독도 행사를 진행하였다. 바른생활부와 학예부가 함께 주관한 행사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우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스도 많은 학생의 관심을 이끌었다.

독도교육주간은 4월 셋째 주로, 4월 11일부터 15일, 5일간 운영되었다. 독도교육주간을 맞아 독도와 우리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꾸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바른생활부와 학예부는 연합하여 함께 주관하는 <독도 바로 알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바른생활부는 '독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퀴즈를 만들어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지식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독도가 가장 처음 불려진 이름은 무엇인지, 독도의 날은 언제인지, 독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언급된 문서가 어느 것인지 물어보며 학생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것들을 고집어 앞으로는 독도와 관련된 지식을 더욱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퀴즈였다. 퀴즈를 맞힌 학생들에게는 독도 샤프를 경품으로 주며 일상 속에서도 독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학예부에서는 '나만의 독도 에코백 디자인' 부스를 운영하여 자신이 독창적으로 에코백을 만들고, 부스 참여가 끝난 후에도 사용하게 만들어 독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반도 모양의 자, 다양한 마커와 색연필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마음대로 에코백을 꾸밀 수 있도록 구비해 놓았다. 에코백을 꾸미면서 볼 수 있도록 독도의 옛 이름과 위인 등 독도와 관련된 간단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만든 판넬도 전시해두어 학생들의 참여는 물론 독도의 지식도 얻어갈 수 있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부스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학년을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독도 바로 알기> 활동 부스에 흥미를 보였으며, 독도 샤프나 다양한 간식은 학생들의 참여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독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퀴즈를 통해 자신이 모르고 있던 독도의 지식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으며, 이 퀴즈를 주관한 학생회 학생은 독도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도 독도와 우리 역사를 함께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기획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만의 독도 에코백 디자인' 부스는 다양한 학생들의 작품처럼 보여졌다. 단순히 독도의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그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강조하기도 하고, 작지만 디테일하게 독도의 전체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였으며, 독도에서 사는 감정을 그려 귀여움을 한껏 자아내는 에코백을 만들기도 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에코백을 만드는 부스 자체가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만의 에코백을 구상하면서 독도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5월 26일과 27일에는 평화·통일교육주간을 운영했다. 평화통일 골든벨, 평화·통일 소원 팔찌 만들기, 다문세(다문화로 만나는 세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평화 교육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 학생회의 독도바로알기 행사 부스.



▲ 평화·통일 교육주간에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효행은 꾸준히, 효실천 봉사 진행

동서남북기자단 2학년 8반 지혜빈



▲ 자매결연한 효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 학교 인근의 내포 소재 아파트 경로당에 물품을 전달했다.

흥성고등학교 효실천 봉사단 학생들은 지난 7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효성, 롯데, 극동, 경남, 모아엘가, 엘에이지, 중흥 등)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면서 작은 먹거리와 휴지 등 필요 물품들을 드렸다.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물어보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로당이 한동안 문을 닫아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어려웠다고 전하며 봉사단 학생들을 반겨주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학생들이 등, 학교를 할 때마다 인사를 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칭찬해주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틈틈이 주변을 둘러보며 나 자신을 환기시키라는 조언도 해주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의 이야기, 지금의 우리보다 어린 나이부터 노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에 살고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는 의무교육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 보고 자신의 미래와 꿈, 목표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흥성고 주변 아파트 사는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봉사에 참가한 2학년 8반 최00 학생은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이상하리만큼

포근했다. 더운 날씨에 이곳저곳 걸어나니 느라 지쳤는데 반겨주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뿌듯함은 배로 돌아왔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힘들지는 않냐며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너무 덥고 시간이 부족해 오래있지 못하고 나왔는데 요즘은 날씨가 선선하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더 많은 얘기와 더 좋은 선물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2학년 4반 장00 학생은 “해가 쨍쨍한 여름이라 봉사 내내 덥고 힘들었다. 하지만 준비해서 간 선물들을 보고 고맙다고 해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이랑 나눈 대화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기에 뿌듯하고 감사했다. 한 어르신께서 우리 흥성고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다들 너무 예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당시 부끄럽기도 했고 낯을 가려 대답을 잘 못하고 얼버무렸던 게 후회가 된다. 다음엔 더 살갑게 대해드리고 싶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 뿌듯한 마음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학생과 어르신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적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봉사활동의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봉사활동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화합하는 흥성고등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드는 공감 대화 실천 주간

동서남북 기자단 1학년 2반 김시훈

9월 19일(월)~23일(금) 동안 창의인성부에서 진행한 공감 대화 실천 주간이 진행되었다. 공감 대화 활동은 학생들의 언어 문화를 개선하고 언어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과 공감 대화를 직접 실천하면서 서로 좋은 교우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감 대화 실천 주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흥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따뜻한 교우관계를 이루고 공감 대화를 바탕으로 학교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공감 대화 실천 주간은 학교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공감 대화 실천 주간에 하는 활동으로는 공감 대화 탐구지와 공감 대화 자기 실천서 작성이 있었다. 먼저 탐구지는 자신의 관심사,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문제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느낀 점을 쓴다. 그리고 자신이라면 문제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실제

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 작성한 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문제의 갈등상황 해결방안을 작성하면서 우리사회의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활동이다. 공감 대화 탐구지를 작성하고 제출한 학생들은 탐구지의 내용 충실도와 완성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상품을 받았다.

자기 실천서는 이름 그대로 자신이 실천한 내용을 써내려가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는 글을 작성하고 평소 사용하던 언어습관 중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를 선정한 후 자신이 지금까지 왜 이 단어를 사용해왔는지 깊게 생각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해당단어가 공감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고 이해하면서 이 단어를 대체할 새로운 단어를 찾아 작성하는 것이다. 대체할 단어를 찾아낸 후에는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부적절한 단어를 대체할 단어를 실제로 사용해보고 어땠는지 작성하면 자기 실천지 활동이 끝나게 된다. 쓰지만 하면 끝나는 탐구지 활동과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자기 실천지를

작성하면 상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급별로 가장 많이 제출한 반을 기준으로 상품이 지급되었다. 공감 대화란 이름 그대로 상대방의 말속에 숨은 뜻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속에 있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해 서로 간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려줄 수 있는 대화법이다. 때때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공감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알려줘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다. 자극적이고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서 사람들은 가끔씩 자신이 뜻도 잘 모르는 단어를 말할 때도 있고 비속어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기도 한다. 이번 공감 대화를 통해 흥성고등학교 학생들이 공감 대화의 방법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법에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 실천하면서 스스로의 언어습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우리 학교는?

3학년 9반 진애림

2019년까지 몇 년간 30%를 유지하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35%까지 치솟고, 이에 이어 지난해 2021년에도 37%까지 상승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 하는 것을 다른 활동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시간과 같은 이용에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강한 보상을 주는 활동, 자극을 선호하는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뇌 발달 과정에서 감정적 자극에 예민해지고, 충동적이고 감정적 행동이 증가하면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조절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타인의 관심에 주목하는 인지적 발달의 특성에 따라서 스마트폰 속 SNS, 다른 사용자의 반응 등에 예민해지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낳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블루라이트, 밝은 빛은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는 생체리듬을 깨고, 결과적으로 수면시간을 단축하게 하고 수면의 질마저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줄어든 수면시간으로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정서적 발달과 학교 적응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이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이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한다면, 기존 책이나 사전들과 달리 바로 필요한 정보들만 요약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으며,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등 사고능력을 키울 기회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는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예시로 우리 학교 내에서도 같은 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으로 대화하는 등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간관계에 뒤처지게 됩니다. 대면 의사소통을 어려워하게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공감 능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엠티러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안 좋은 자세를 지속하는 습관을 지니게 된다면, 주변을 둘러봐도 느낄 수 있는 '거북목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손목터널증후군', '안구건조증', '목디스크' 등 다양한 신체

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악영향을 가진 '스마트폰 과의존', 과연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표에 따라서, 현재 걱정 사용 권장 시간인 2시간을 넘은 비율은 무려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5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 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설문에서는 약 40%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에 상응하듯,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설문에서는 약 47%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큰 편이지만 조절과 학업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절반 정도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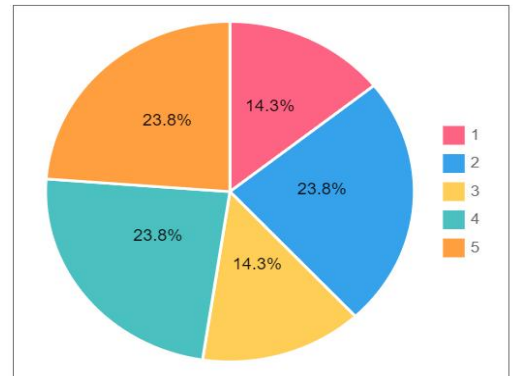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스크린 타임>과 <디지털 웰빙>입니다. 이 두 가지는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다를 뿐, 같은 성능을 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앱 그리고 화면이 켜진 횟수, 사용 빈도 등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든 만큼 정확하게 본인 자신을 인지해볼 수 없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자신을 인지할 수 있으며 사용 빈도를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하여 스마트폰 사용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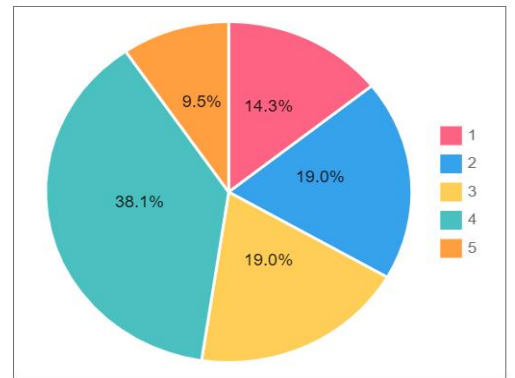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하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침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미디어 과의존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한 청소년 종합상담 <1388 청소년 사이버 센터>를 이용하여 본인의 정서 상태, 불안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 및 체험활동 등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이트,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서 입교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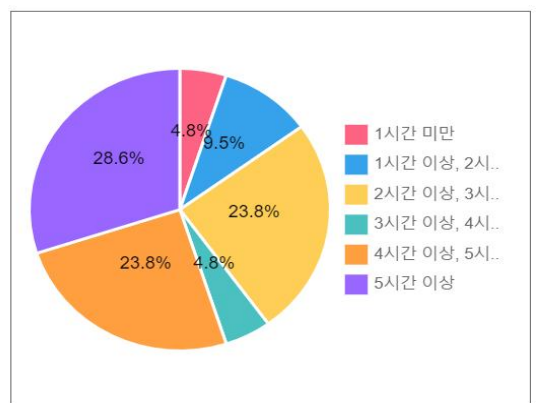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업무(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구분	전형 일정	장소
원서교부·접수	2022.12.12(월) ~ 12.13(화) 17:00까지	본교 접수처
합격자 발표	2022.12.20(화) 10:00	본교 누리집
예비 소집	2022.12.21(수) 14:00	본교 시청각실